

# 대치동 언니의 스펙 과외

# 종이과외

# 경영학과

# 3학년 1학기

# 스펙 점검편



# 01

---

나의 현재 상태는?

# 스펙 과외 커리큘럼



"스펙? 저만 따라오세요"

시리즈	권	목차
경영학과편	1	나의 현재 상태는? - 긴급 스펙 점검
	2	제대로 된 꿈을 찾아볼까요? - 진로 설정
	3	나만의 동아리를 만들어 볼까요? - 동아리 활동 1
	4	제대로 된 동아리 활동을 진행해볼까요? - 동아리 활동 2
	5	자율/진로, 놓치지 않을 거예요 - 자율/진로활동
	6	경영학과에 맞는 봉사활동이란? - 봉사활동
	7	놓치면 안되는 세특 공략법 1 - 세부특기사항 1
	8	놓치면 안되는 세특 공략법 2 - 세부특기사항 2
	9	놓치면 안되는 세특 공략법 3 - 세부특기사항 3
	10	마음의 양식을 제대로 쌓아볼까요? - 독서활동



# 대치동 언니의 스펙과외



# 진금 스펙 점검

나의 현재 상태는?

## TIME TABLE

- |       |              |
|-------|--------------|
| 01    | 저는 망했어요.     |
| 02    | 나의 현재 상태는?   |
| 03    | 명문대생의 합격비밀   |
| 04    |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
| BONUS | 언니의 요즘 브리핑   |





# 저는 망했어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스펙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줄 대치동 언니예요! 비록 여러분보다 나이를 좀 많이 먹은 것도 같지만, 저 언니 소리 들어도 되는거죠? 맞죠?(그렇다고 해주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



원래는 굉장히 쾌활하고, 신명나는 성격이지만, 진지모드로 여러분을 지도할 예정이니, 양해해주세요.(가끔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게요!) 우리는 10권으로 스펙을 끝장내야 하는 바쁜 사람들이니 바로 시작해보죠.

먼저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학종의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스펙, 내신, 자소서, 면접 중에서 1~4등을 꼽아보죠.

내가 생각하는 학종의 포인트는?



\_\_\_\_\_

3.

\_\_\_\_\_

2.

\_\_\_\_\_

4.

\_\_\_\_\_

골라보셨나요? 사실 완벽한 정답은 '모두 중요하다'이지만, 소수점까지 점수를 냈을 때 대치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아요.

## 내가 생각하는 학종의 포인트는?



내신

2.

스펙

3.

자기소개서

4.

면접

먼저 내신은 대학의 지원 기준선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아무리 스펙이 뛰어나도 내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제대로 평가해 줄 대학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대학은 '활동을 열심히, 잘하는 학생'보다는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고, 학점 관리 잘하는 모범생'을 원합니다.

그러면 답은 나오죠. 내신 관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치동 언니의 스펙과외가 더욱 중요하답니다. 10권이라는 권수가 많아보일 수 있어도, 한 권 한 권 풀어보며 생활기록부에 적용해나가다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대치동 거주자도 부러워 할 만한 스펙을 쌓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장담하죠)

스펙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위의 표에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자소서와 면접이죠. 여러분은 대략 7월 정도부터 자소서 작성을, 8월 정도부터 면접 준비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많은 학생들이 제게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자소서에 쓸 것도, 면접에 나올만한 질문도 없어요... 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제대로 된 스펙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늦었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해요! 대치동 언니와 함께라면 다 할 수 있어요! 3학년 1학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중요한 시기인만큼 3학년 1학기는 입학사정관님들이 중점적으로 보시는 학기이죠. 그래서 1, 2학년 스펙이 부족해도, 3학년에 충분히 만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망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과거에 내재되어 있던 스펙을 잘 연결만 한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생기부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 망한 생기부를 부활시킨 사례 - 2학년까지의 스펙

- 학교 유형 : 일반고
- 내신 : 3점 중반
- 진로희망 : 사회연구원
- 동아리 : 사회탐구동아리
- 자율/진로활동 : 학급 부스 운영(음식 판매)
- ➔ 기타 경영 관련 스펙, 두드러지는 스펙 ZERO

어떤가요? 이 학생의 스펙, 전혀 경영학과와는 어울리지 않는 스펙이죠? 사회학과, 정치외교학과 등에 진학하면 딱 좋을 스펙입니다.(물론 이것 외에 사회학과 관련 스펙도 별로 없었습니다...00아 보고있니?) 이 학생은 갑자기 3학년에 올라와 인서울 경영학과에 꼭 가야겠다고, 저를 찾아왔어요. 물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았기에, 저만 믿고 따라오라고 했죠.

위에 적어놓은 스펙이 '나'의 스펙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경영학과에 안가면 미쳐버릴 것 같은, 과감 뒤에 'Business Administration'을 무조건 적고 다니고 싶은 상황입니다.(여러분도 지금 그런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 정도 열망이 있어야 합격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스펙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한 번 적어볼까요? 가볍게 진로희망, 사회문화 세특에 적을 주제 정도를 고민해봅시다.

## 3학년 때, 나라면 이렇게 했다.

1. 3학년 진로희망 :

2. 사회문화 세특에 적을 보고서 주제 :

적어보셨나요? 어렵죠? 빨리 이 학생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생기부를 적었는지 알려달라고요? 이렇게 쉽게 알려주면 재미없죠! 이 학생의 생기부는 어떻게 변화했는지는 앞으로 사례로 알려드릴게요. 이 학생이 2학년 때 자신의 생기부를 정리해본 것처럼, 여러분도 2학년 때까지의 생기부를 정리해보아야겠죠? 여러분이 지금부터 간단하게 정리할 생기부는 다음 시간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니, 한 번 제대로 적어봅시다.

## 쉬는 시간 : 경영학과 졸업하면 뭐하나요?

- 질문에 대한 답변 : 경영학과에서는 보통 은행, 증권사에 취업하거나, 회계사, 세무사와 같은 전문 직종에 도전하는 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편견에 불과해요! 경영학과는 기회의 땅입니다. 창업을 할 수도 있고, 공연기획가가 될 수도 있죠.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김과외의 사업개발팀 매니저님도 경영학과를 나오셨는데, 교육 상품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언뜻 보면 무관해보이지만, 경영학과에서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배우기 때문에 어떤 진로를 선택하더라도, 경영학과에서 배운 이론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에 들어가겠다고 해도, 세금, 자금 처리 등은 꼭 해야하기 때문에 경영학과에서 배운 재무, 회계 관련 지식들을 활용어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지금 정한 꿈에서 멈추지 말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나가는 예비 경영인이 되길 바랄게요~!

## 너 자신을 알라

- 학교 유형 :
- 내신 :
- 1/2학년 진로희망 :
- 경영 관련 동아리명(ex. 경제날라리(경제)) :
- 비경영 관련 동아리명 :
- 4번 이상 꾸준히 했던 봉사활동 :
- 경영 관련 독서 권수 :
- 경영 관련 독서 권수 :
- 경영 관련 자율/진로활동 주제 :
- 비경영 관련 자율/진로활동 주제 :
- 경영 관련 세특 주제 :
- 비경영 관련 세특 주제 :

잘 적어보셨나요?  
열심히 정리한 생기부를 소중히 보듬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봅시다!



# 나의 현재 상태는?

## 테스트 1 : 성실도

첫 번째 테스트는 여러분의 성실함입니다. 학생부종합에는 다양한 평가 기준이 존재해요. 그 중에서도 1차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얼마나 본인에게 맞는 활동을 꾸준히 해왔는가?'입니다. 다시 말해 학종은 양보다 질이라는 것이죠. (물론 꾸준함이 계속되면 양도 많아지겠죠?) 조금 부끄럽겠지만, 생활기록부를 따라 솔직하고 냉정하게 본인의 상태를 점검해봅시다. 해당한다면, 빨간펜으로 체크해주세요!

## 테스트 1 : 여러분은 꾸준했나요?

### 출석 등 기본 영역

1. 나는 한 번도 무단 지각한 적이 없다.
2. 나는 한 번도 무단 결석한 적이 없다.
3. 3년간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에 칭찬이 없었던 적이 없다.
4. 나는 매 학기 상을 하나씩 꼭 받아냈다.

###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1. 1년 6개월 이상 한 곳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해왔다.
2. 2년 이상 같은 동아리에서 연속으로 활동해왔다.
3. 전교생 참가 활동 외에 따로 진로 활동을 매학기 채워 넣어왔다.
4. 전교생 참가 활동 외에 따로 자율 활동을 매학기 채워 넣어왔다.

모두 해보셨나요? 여러분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아요.

나 좀 열심히 살았네? 훗!



아니 뭐야? 나 이것 밖에 안돼?

너무 우쭐할 필요도, 너무 토라질 필요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아직 1학기가 더 남았으니깐요.** 테스트 결과에서 여러분이 체크하신 것 부분은 그대로 이어나가주세요. 절대 멈춰서는 안됩니다. 성실함은 마지막에 판단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중간에 몇 번 열심히 했다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하던 것을 잘하는 것도 어렵지만, 무엇보다 어려운 것은 해오지 않던 것을 잘하는 것이겠죠? 여러분이 체크하지 않으신 항목들은 3학년 1학기에 기필코 사수해야 하는 항목들이에요. 만약 1,2학년 때 조퇴가 많았다면, 3학년에 개근만 기록해도, "애 좀 발전했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학년 1학기에 반짝한다고 해서 되겠어?"라는 질문이 쏟아질 것 같은데요. **아직 안끝났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소도 잃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그만큼 3학년 1학기는 덜 성실했던 모습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학종의 평가 기준 중 하나는 '성장가능성'입니다.  
3-1학기에는 두 배, 세 배 더 발전된 모습을  
[스펙]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 차시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을 부분들에 대해 간단히 팩트폭행을 하고 넘어가볼게요. 딱 한 번이니, 저의 진심어린 조언, 귀기울여주세요!

## 출석 등 기본 영역

'무단' 이 붙었다면, 큰 감점요소가 될 수 밖에 없어요. 어떤 것도 허용될 수 없어요. 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지각, 결석입니다. 심지어 아무 이유 없이 결석하는 학생에게는 아무리 시험 성적이 뛰어나도, 'F'를 부여하는 교수님도 많답니다. 공부할 학생을 뽑는 학교에서 성실히 공부하지 않는 학생은 뽑을 이유가 없겠죠?

행동 발달은 중요하지 않냐고요? 행동 발달은 여러분의 선생님이 작성해주시죠? 행동 발달 내용이 칭찬 밖에 없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생님과 의 사이가 좋다는 뜻입니다. 그러하면 대학교에서 여러분의 선생님은 누구죠? 교수님이죠! **고등학교 시절에 선생님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학생을 좋게 평가할 리가 없습니다.**

매 학기 상은 꼭 받아야 합니다. 물론 **질이 좋은 상**을 말이죠. 여러분은 상을 하나씩만 기재할 수 있습니다. 겨우 하나 기재할 수 있는 수상 경력에 두 학생은 각각 이런 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둘 다 최우수상을 받았지만, 상대적으로 경영학과에서는 경제경시대회에서 최우수를 받은 학생을 더 선호하겠죠? 질 좋은 상을 제대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수학/경제 경시대회와 같은 질 좋은 상은 매년 수상하면 꾸준함도 함께 보여줄 수 있습니다.



## 테스트 2 : 전공적합성

두 번째 테스트는 **전공적합성**입니다. 대학은 여러분이 어디까지 성장할 지도 관심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경영학과에 와서 수업을 당장 들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가 주된 관심사입니다. 이 역량은 당연히 여러분이 경영과 관련된 스펙을 얼마나 많이, 잘 쌓았는지로 갈리겠죠? 자 방금 해보셨던 것처럼 다시 한 번 스스로를 평가해봅시다. 나 자신을 한심하게 바라보기보다는 더 잘할 수 있다는 의지를 스스로 북돋워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랄게요!

## 테스트 2 : 여러분은 경영과 찰떡 공학인가요?

### 내신 / 수상 영역

1. 수학 과목에서 1~2등급을 두 번 이상 받았다.
2. 경제 과목에서 1등급을 받은 적이 있다.
3. 수학/경제 경시대회에서 상을 받은 적이 있다.

###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1. 2년 이상 경영 관련 동아리를 진행해왔다.
2. 학생회, 동아리 회장 등 임원직을 맡아본 적이 있다.
3. 매년 꿈(경영)과 관련된 진로 활동 기록을 선생님께 따로 제출해왔다.
4. 매년 경영과 관련된 자율 활동 기록을 선생님께 따로 제출해왔다.

### 세부 특기 영역

1. 국,영,수,사탐 과목마다 경영 관련 활동을 적어왔다.
2. 과탐, 예체능 과목마다 경영 관련 활동을 적어왔다.

잘 체크해보셨나요? 많이 체크가 되어있지 않아 속상하시다구요? 괜찮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3학년 1학기가 남았습니다. 나머지 3학년 1학기는 온전히 경영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꿈이 회계사, CEO처럼 경영과 직결되지 않은 진로가 아닐지라도, '나는 경영에 미쳐있습니다. 경영학과 입학만 시켜주시면, A+과 장학금을 휩쓸 자신이 있습니다'를 마구마구 알릴 정도여야해요. 지금부터 색칠되어있는 문장을 내 머리와 마음 속에 전달해봅시다.(사이비같나요?)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 번 팩트폭행을 날려볼게요!(아프지마요,,,모두 회복시켜드릴게요!)

## 내신 / 수상 영역

경영학도에게 가장 중요한 과목은 누가 뭐래도 수학입니다. 저도 수학이 싫어 인문계열 진학을 희망했지만, 경영학과에 진학해서 다시 수학을 질릴 정도로 만났답니다. 경영학과에 진학하면 복잡한 공학용 계산기를 손에 끼고 다녀야하죠. 그만큼 **고등학교 시절 수학 성적은 예비 경영학도에게 중요**합니다. 수학뿐만 아니라, 경제 또한 중요한 과목 중 하나입니다. 경제가 비인기 과목이기 때문에 경제 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 있다면 좋은 성적을 거두면 좋겠죠?

또 앞서 설명드렸듯이 수학이나 경제, 아니면 영어 등의 외국어 경시대회 상이 있다면 다른 상을 받은 것보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꼭 경시대회상이 아니더라도 토론 대회상 등 질 좋은 상을 받으면 좋습니다. 제가 날린 팩트폭행에 대한 연고는 앞으로 계속 건네드릴게요! 잠깐 합격수기를 읽으면서 머리를 식혀봅시다!

경영학과는 당연히 경영을 좋아합니다.  
경영학과에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스펙 1순위는 무조건 경영입니다!



# 명문대생의 합격 스펙

## 합격생 스펙



이름	방혜주
나이	24세
출신고교	호평고등학교
합격 대학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합격 전형	학교장추천전형

##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서 막학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17학번 방혜주입니다. 졸업한지 오랜 시간이 지난 늙은이를 인터뷰해주시다니...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했습니다. 비교적 정보도 부족하고, 희망 대학에 진학한 선배도 없는 상황이어서 꽤 고군분투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가장 집중한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지?' 라는 질문에 답을 내리는 거였어요. 공부와 학교생활로 바빠질 때면 열심히 달려나가긴 하는데 목표를 잃는 경우가 많잖아요. 가능한 길을 잃지 않고, 공부와 학교생활을 하는 이유에 대해 계속 상기하며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 2학년 때까지의 스펙은?

2학년 때까지의 스펙을 교과랑 비교과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우선 교과 성적은 1.1~

1.2 정도로 기억해요.

놀랍게도 제 모교에서 고려대를 진학한 선배들은 주로 내신이 1.0x점이어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비교과 활동은 한마디로, 굉장히 활기찼어요. 계획적으로 비교과를 챙겼다가보다는, 여러 활동이 다 재미있어 보여서 닥치는대로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전교회장단과 반장과 같이 리더십 관련 활동이 많았어요. 대회는 참여할수록 성장하는게 많이 느껴지고, 또 한편으로는 대회를 준비하다보면 합법적으로(?) 공부를 안 해도 되는게 좋아서 가능한 모든 기회를 다 노렸어요. 그리고 토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힘을 길렀습니다.



경영학과에서는 당연히 [리더]를 좋아해요!  
꼭 학생회장, 학급회장이 아니더라도, 동아리 회장, 부회장,  
팀장 정도라도 꼭 맡아주세요!

### 왜 굳이 경영학과를 선택하셨나요?

중학생 때 임원 활동을 한적이 있는데, 그 때 여러 사람들이랑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는게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특정 분야의 사회적인 문제해결을 하고 싶었고, 이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직업으로 '스포츠 에이전트'가 되고 싶다고 희망했습니다. 비체육인으로서 스포츠 에이전트가 되기 위해서는 경영학과를 졸업해야한다는 정보를 접하고, 경영학과를 선택했어요.

## 3학년 진학 전 스펙 점검은?

역시나 교과, 비교과로 나누어서 각각 평가해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방혜주' 라는 지원자의 스토리를 만들어봤어요. 교과같은 경우는 참 심플하죠. 내가 가진 합격자 데이터 안에서, 내 점수가 합격권에 들어가는지를 완전완전 객관적으로 확인했어요.

비교과 같은 경우는, 손 봐야할 게 참 많다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다행히도, 스포츠 경영에 대한 관심은 1학년 때부터 쪽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련 활동, 탐구가 많았어요. 하지만 다른 비교과 영역이 깊이가 많이 없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너무 활동적이어서 혼자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거나 이슈를 분석하는 등의 깊은 탐구가 부족했습니다. 특히 경영학에 대해 알아갈수록 기본 경제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 고3 때 어떻게 스펙을 쌓으셨나요?

일단 교과 성적을 1.0x점대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비교과 활동의 컨셉을 혼자 정해봤어요. 바로 차별해지는 거였어요. 엉덩이 오래 붙이고 앉아서, 그간 내가 활동했던 것들의 이론적인 배경과, 관련된 최근 이슈를 파악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경제경영 동아리에서 주로 신문 읽기, 독서 모임 등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경제에 대해 탐구해보려고 따로 공부를 시작했는데 정시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신공부, 수능공부랑 병행하는게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꼭 스펙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면접 대비를 위해  
경영 관련 지식이나 꿈과 관련된 상식을  
틈틈이 쌓는 것은 기본입니다

## 선생님만의 합격 비결은?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 그 누구든 '뽕힐만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지표가 부족하지 않았어요. 성적, 수상실적, 봉사점수와 같이 생활 기록부에 정량적으로 드러나는게 다른 지원자보다 조금이라도 앞서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건 합격자 대부분이 다 갖추셨을 거라 생각해요.

확실하게 합격을 결정 짓는 것은, 나와 경영학과, 나와 고려대학교의 Fit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달성하고, 희망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정말' 경영학과의 최선의 선택인가? 그리고 수많은 경영학과 중에서도 왜 꼭 고려대학교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누구보다 자신있게 답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 예비 경영학도에게 해주고 싶은 말

다변하는 사회 속에서 경영학이라는 학문은 자칫 전문성을 기르기에 좋지 않은 선택지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취업으로 가는 확실한 길처럼 보여서, 다른 대안 없이 무조건 골라야 하는 선택지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경영학과의 모 교수님이 수업 중 제일 많이 사용하신 'It depends' 라는 말이 있어요. 경영학에서 다루는 수많은 이슈와 케이스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경영학과에 진학하려는 여러분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경영학과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크게 달라집니다. '경영학과에 가기 위해 뭘 해야하는가?' 라는 질문에 앞서, 내가 가진 꿈은 무엇인지 정말 깊게 고민해보세요!

#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 고3은 엮어야 산다

험난한 테스트를 끝낸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어떻게 활동을 계획해야 할 지 함께 고민해봅시다. 테스트 결과를 떠나 고3 스펙은 **잘 엮는 것이 생명**입니다. 잘 엮지 않으면 고3 때 진행한 활동의 깊이는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엮기 어려워 하시는 스펙을 예로 들어볼까요?

### 2학년 스펙 방향잡기 예시

1. 국어 세특 - 윤동주 시인의 작품을 활용한 시 창작 활동
2. 과학 세특 - 지구과학 I - 토양 오염 관련 토론 활동

이걸로 어떻게 경영이랑 엮으라는 것인지.. 참 어이가 없죠? 조금만 더 생각해봅시다. 여러분이 2학년 때 적은 진로 희망, 생각나시죠? 그 꿈에 맞는 활동을 한 번 구상해봅시다. 토론, 보고서, 발표 등 어떤 활동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위 두 활동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 번 적어볼까요?

### 3학년 스펙 방향잡아보기

1. 국어 세특 - 소설가 김유정의 작품을 활용한 시 창작 활동

:

2. 과학 세특 - 지구과학 I - 수질 오염 관련 토론 활동

:

적어보셨나요? 어렵죠? 그렇다면 저의 답을 한 번 살펴볼까요? 음..저는 2학년 때의 꿈을 여행사 CEO라고 정해보겠습니다. 여행사라면 자고로 사람들이 좋아할만한 여행 상품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요즘 사람들이 좋아할만 키워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조금만 더 생각해보죠. 제 답을 듣기 전에, 요즘 사람들이 관심있는 것, 다시 말해 2020년대의 트렌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아는대로 한 번 적어볼까요?

### 2020년대의 트렌드?

- 1.
- 2.
- 3.
- 4.

잘 적어보셨나요? 제가 생각하는 2020년대의 트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대의 트렌드?

1. 코로나 19
2. 必환경 시대
3. 나를 위한 소비
4. 체험 공간

제가 적은 트렌드를 가지고, 스펙 방향을 다시 잡아볼까요?



## 3학년 스펙 방향잡아보기

1. 국어 세특 - 소설가 김유정의 작품을 활용한 시 창작 활동

:

2. 과학 세특 - 지구과학 I - 토양 오염 관련 토론 활동

:

이제 조금은 수월해지셨을까요? 아직 어렵다구요? 이제 저의 정답을 적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활용할 트렌드는 1번, 2번, 3번, 4번 모두 입니다.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잠시 접어두고, 먼저 정답부터 알아보까요?

## 대치동 언니의 정답

1. 국어 세특 - 소설가 김유정의 작품을 활용한 시 창작 활동

: 춘천 지역을 테마로 한 문학 체험형 여행 상품 개발 활동

2. 과학 세특 - 지구과학 I - 토양 오염 관련 토론 활동

(1) 여행객으로 인한 환경 오염 방지 대책 보고서 작성 활동

어떤가요? 꽤나 있어보이는 스펙이 탄생했죠? 앞으로 저와 함께 다양한 항목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학생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려나갈 것입니다.

경영학과의 기본은 트렌드를 읽는 것입니다.  
항상 포털 사이트의 뉴스 탭을 확인하고,  
[트렌드 코리아], [트렌드 노트]같은 책을 꾸준히 읽어주세요!



## 고3은 발전이다.

고3은 고1, 2보다 훨씬 더 발전하고, 훨씬 더 유능해야 합니다. 책 한 권을 읽더라도, 고2보다 높은 수준의 책을 읽어야 하고, 토론을 하나 진행하더라도, 더 높은 수준의 주제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2학년 때,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는 옳은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어요!  
어때요, 어렵죠?

맞아요. 충분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3이라면 한 단계 더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한 단계 더 어려운 주제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먼저 키워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는 옳은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학생이 준비해야 한다고 할 때, 어떤 키워드가 등장할 것 같나요? 마구마구 적어봅시다!

### 마구마구 적어보는 토론 키워드

잘 적어보셨나요?(정말 마구마구 적어야해요! 한 두개 적었다면 다시 돌아가세요!)

### 대치동 언니가 마구마구 적어보는 토론 키워드

대기업      사회적 기업      법인세 강화  
중소기업      경쟁완화      자본주의  
문재인 정부      기업 상속      공정합      재벌

제가 적어본 키워드는 다음과 같아요. 여러분이 적은 키워드와 겹치는 것이 좀 있나요?  
어때요, 저와 여러분의 키워드를 합치니 토론할 주제가 엄청나죠? 그렇다면 고급진 토론  
주제를 두 가지 정도 적어볼까요? **무조건 기존 주제보다 수준 높아야 해요**(진지)

### 내가 정하는 고급진 토론 주제

1.

---

2.

---

잘 적어보셨나요? 제가 적은 주제도 한 번 보실까요?

### 대치동 언니가 정해본 고급진 토론 주제

1. 대기업에게 적합한 법인세율은 얼마인가?

---

2. 사회적 기업은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바꿀 수 있는가?

---

이 정도 주제면, 대학생들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면, 고3 다운, 아니 예비 경영학도 다운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이렇듯 전보다 두 배, 세 배는 더 좋은 역량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3 스펙 관리의 기본 법칙 두 가지를 함께 외쳐볼까요?



1. 고3은 뉘어야 산다!
2. 고3은 발전이다!

이제 첫 번째 법칙을 깨달은 여러분, 더 고민이 깊어지셨죠? 지금 여러분의 생기부에 담긴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요?

저의 고민은...

1.

2.

두 줄로 부족하시죠? 봉사, 동아리, 세특, 독서, 자율/진로까지 이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하다니...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실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대치동 언니가 준비했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두 가지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대치동에서만 쓰이는 비법들을 무자비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언제부터 공개할거냐구요?

GAWEBene®

# BONUS : 언니의 요즘 브리핑

**요즘 시사 이슈** : 여기 시간 팔아요!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는 **주52시간 근무**였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는 많은 시간이 주어졌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저녁 회식도 사라지고, 부모님들은 재택 근무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며,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상황은 두 번 말하면 입아프고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의 키워드는 '시간'입니다. 나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해나갈 것인지에 관심이 쏠려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짧게 계속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하루 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 열풍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업에서도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원데이 클래스를 많이 개최하고

있는데요. **원데이 클래스 매칭 플랫폼 '솜씨당'**의 기업 대상 라이브 클래스

참여 기업 수가 2020년 3월 대비, 10월 기준으로 500% 성장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 하죠?



**요즘 읽으면 좋은 책** : 규칙 없음 / 리드 헤이스팅스, 에릭 마이어

규칙없음은 표지에 그려진 빨간색 N에서 알 수 있듯, 규칙없음은 넷플릭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실시간으로 쏟아져나오는 TV 프로그램에 심취해있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유튜브, 그리고 **OTT 서비스**에 빠져있죠. 넷플릭스는 세계 미디어 시장의 판도를 바꿔놨습니다. 아니죠. 다시 말해 넷플릭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혁신적인 인력들이 바꿔놓은 것이죠. 넷플릭스는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규칙없음을 통해, 미디어 시장의 혁신을 이끌어 온 넷플릭스의 조직적 혁신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시다. 특히, 인사 분야에 관심

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꼭 한 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2탄 예고

### 01 요즘 브리핑을 활용한 나만의 활동 주제!

주52시간 근무제, 넷플릭스 등 요즘 브리핑에서 다룬 내용들을 활용하여 과목별 세특, 동아리, 자율, 진로 등에 바로 적용할 수 있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활동 주제를 추천드려요!

대치동 언니가 추천해 준 주제로 보고서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만점짜리 스펙 완성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도 추천해드릴게요!)

▶ **질질 끌지 않고, 2탄 시작부터 바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 02 나의 꿈을 살린 스펙 대비법

이제 겨우 생기부를 파악하신 여러분, 이제는 본격적으로 스펙을 쌓아야할 시간입니다. CEO? 마케터? 그런 단순한 꿈으로는 합격할 수 없어요.

[식품 사회적기업 CSO, KBO 공인 에이전트 그룹 CFO]처럼 체계적이고, 멋진 꿈, 다음 시간에 같이 쌓아봐요!



1편은 시작에 불과해요.  
진정한 선물은 2탄에 숨어있어요!

# 합격을 향한 첫걸음, 잘 내딛으셨나요?

앞으로 여러분의 합격의 순간은 조금씩 다가오고 있어요.  
대치동 언니가 그 순간과의 거리를  
조금씩 좁혀드릴게요.

조금만 힘내요, 우리



# 대치동 언니의 스펙과외

01